

후방 지역 군인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효자¹ · 권순철² · 김현미³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¹,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 전 전남화순 대대장², 대구과학대학 간호과 전임강사³

Factors that Influence Non-combat Military Soldiers' Suicidal Ideation

An, Hyo-Ja¹ · Kwon, Soon-Cheol² · Kim, Hyeon-Mi³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²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shin University
· Previous Battalion Commander of Hwasoon in Jeonnam, ³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non-combat soldiers' suicidal idea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of survey were 302 of soldiers in Y and H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 5 to 8, 2008 in H city and Oct. 25 to 30, 2009 in Y city. The instruments were the SRI (Stress Response Inventory) developed by Ko, Park, & Kim (2000), SD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developed by Zung (1965) and SSI (Scale for Suicidal Ideation) developed by Beck (1979).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2.0. **Results:** The mean score for the SRI, SDS and SSI were 15.71 ± 19.81 , 32.02 ± 9.67 and 1.34 ± 2.74 respectivel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SRI and SDS ($r=.763$), SRI and SSI ($r=.583$), SDS and SSI ($r=.575$). Stress, depression, age, and educational level accounted for 41% of the variance in suicidal idea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soldiers' suicidal ideation is related to stress, depression, age, and educational level and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programs which focus on stress and depression management.

Key Words: Military Soldier, Suicide, Stress, Depress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군 조직은 국토방위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전통적인 집단이다. 군대는 계급과 직책,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 전투 집단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군은 강제적인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국방 의무에는 매우 강력하고 의무적인 책임이 따른다(Seo & Lee, 2008). 군대에서는 병영훈련이 반복되며 자유와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한 병사들에게는 이와 같은 군 생활이 스트레스로 지각된다(Hyun, Cho, & Kang, 2009). 군에서의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군에서의 적응은 어렵다(Koo, 2004).

이러한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09년 육·해·공군의 전체 사망자 수는 113명이며, 이중 81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10). 군대 내 사고는 병사들이 군 입대 후 갖게 되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업무 관련 스트레스, 상급자와의 가치관 차이, 병사 상호간의 심리적 갈등, 상급자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통제, 그리고 외부와 차단되고 고립된 주변 환경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Youn, 2008). 특히 수직적인 상·하급자 간 인간관계, 긴장된 생활, 실수나 과실을 범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높은

주요어: 군인, 자살사고, 스트레스, 우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Hyeon-Mi, 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College, 390 Taejeon-dong, Buk-gu, Daegu 702-723, Korea. Tel: 82-53-320-1064, Fax: 82-53-320-1761, E-mail: hyeonmi@paran.com

투고일 2010년 7월 29일 / 수정일 1차: 2010년 9월 11일, 2차: 2010년 9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

비난과 처벌의 수준은 군대문화의 주요한 기틀을 이루면서 장병들에게 대단히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Kim, 2007).

Republic of Korea Army[RKA] (2004)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하는 자살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군에서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RKA (2007) 자료에 의하면, 각종 사고로 인한 육군 사망자 수는 2003년에 150명, 2007년에는 121명이었는데, 이중 자살 건수는 2003년에 69명, 2007년에는 80명으로 군대 사망자 수는 19.4% 감소한 반면, 자살자 수는 오히려 15.9% 증가하여 병사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실제 군 내의 자살시도자 중에는 기분장애, 성격장애, 그리고 적응장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Lee & Chung, 2001), 우울증, 강박증, 대인예민증과 같은 정신증상은 군 생활에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Joe, 2003). 군의 자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자살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살 사고가 군 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심리, 가정, 사회문제 등 군 외적 요인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Kim, 2004).

지금까지 이러한 장병들의 문제는 전방 지역에 있는 군부대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Choi, 2005; Kim, 2008; Hyun et al., 2009), 후방 지역 병사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는 적과 미접촉 또는 간접 접촉 지역에 속해 있는 후방부대의 장병들이, 경기도와 강원도와 같이 적과 직접적으로 접해 있어 유사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강한 훈련, 생명의 위협, 임무의 정확성과 긴박성 등에 노출되어 있는 전방부대의 장병들(Ryu, 2004)에 비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방부대는 현역 위주인 반면, 후방부대는 현역과 상근예비역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후방 지역은 현역과 상근예비역이 함께 근무함으로써 활동영역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향토사단으로서 지역의 각종 군은 일에 동원되는 문제, 상근예비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 등 전방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상근예비역은 군 소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개인 또는 가정에 사정이 있을 때 기본 군사교육 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므로(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다. 상근예비역은 상대적으로 가정형편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문제는 군 생활 스트레스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적응을 어렵게 한다(Koo, 2004). 군에서의 자살기도 이유는 군 내 문제와 군 외 문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상근예비역은 자존감의 저하나 가정의 불화와 같은 군 외 문제에 더 많이 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Lee & Chung, 2001). 그러므로 후방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후방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련 연구는 미비하거나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방 지역 부대 내에 있는 전 군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후방 지역 군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우울 및 자살예방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후방 지역 병사의 자살사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후방 지역 병사들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 후방 지역 군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군 관련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 후방 지역 군인들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후방 지역 군인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후방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영남과 호남 지역에 있는 H시와 Y시의 6개 군

부대에 복무 중인 전 병사 3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ohen (1988)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은 .05, 효과크기(R^2)는 중간정도인 .15, 검정력($1-\beta$)은 .80으로 산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대상자수가 144명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2008년 7월, 후방 지역 군부대 중 영·호남 지역에 있는 두 부대의 상급기관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도구에 대한 설문지를 보내 허락을 받은 후 2008년 8월 5일~8월 8일에 1차로 160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009년 10월에 영·호남 지역의 다른 4개 부대에 동일한 설문지를 보내 상급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2009년 10월 25일~10월 30일에 2차로 160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각 소대의 소대장의 감독 하에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기입한 18개를 제외하고 최종 302개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반응 척도

스트레스 반응 척도로는 Koh, Park과 Kim (200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9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인 경우 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인 경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로 측정된 점수의 총점이 0~69점이면 정상, 70~92점이면 경도의 스트레스 상태, 93~115점이면 중등도의 스트레스 상태, 116점 이상이면 중도의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도 이와 동일하였다.

2) 우울 척도

우울은 Zung (1965)이 개발한 자기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Yang (198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10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으로 계산하였다. 각 항목은 '아니다'가 1점에서 '항상 그렇다'가 4점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척도로 측정된 점수의 총점이 0~39점이면 정상, 40~49점이면 경도의 우울 상태, 50~59점이면 중등도의 우울 상태, 60점 이상이면 중도의 우울 상태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다.

3) 자살사고 척도

자살사고는 Beck, Kovacs와 Weissman (1979)이 개발한 자살사고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를 Park과 Shin (1991)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9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0점에서 2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로 측정된 점수의 총점이 0~8점이면 정상, 9~11점이면 경도의 자살사고 상태, 12~14점이면 중등도의 자살사고 상태, 15점 이상이면 중도의 자살사고 상태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집단 내 차이에 대한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2세가 46.4%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 재학 이상

이 79.5%이었다. 종교는 무교를 포함하여 기타인 경우가 43.7%로 높게 나타났으며, 복무형태는 현역이 68.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복무기간 별로는 18~24개월 이상인 경우가 30.1%, 6~12개월인 경우가 23.2%, 12~18개월인 경우가 18.9%, 6개월 이하인 경우가 18.5%, 24개월 이상인 경우가 9.3%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 21	83 (27.5)
	22	140 (46.4)
	≥ 23	78 (25.8)
Education	High school	61 (20.2)
	University	240 (79.5)
Religion	Buddhism	73 (24.2)
	Protestant	61 (20.2)
	Catholic	31 (10.3)
	Others (None)	132 (43.7)
Form of military service	Officers on active service	28 (9.3)
	Soldiers on service	208 (68.9)
	Reservists on full-time duty	66 (21.9)
Duration of military service (month)	≤ 6	56 (18.5)
	>6~≤ 12	70 (23.2)
	> 12~≤ 18	57 (18.9)
	> 18~≤ 24	91 (30.1)
	> 24	28 (9.3)

Note. Missing cases are excluded.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정도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의 평균은 15.71 ± 19.81 점이었고, 97.0%가 정상범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평균은 32.02 ± 9.67 점이었으며 78.8%가 정상범위에 있었고, 자살사고의 평균은 1.34 ± 2.74 점으로 96.4%가 정상범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Data of Major Variables (N=302)

Variables	M±SD	Normal	Mild	Moderate	Severe
		n (%)	n (%)	n (%)	n (%)
Stress	15.71±19.81	293 (97.0)	7 (2.3)	1 (0.3)	1 (0.3)
Depression	32.02±9.67	238 (78.8)	46 (15.2)	15 (5.0)	3 (1.0)
Suicidal ideation	1.34±2.74	291 (96.4)	7 (2.3)	3 (1.0)	1 (0.3)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21세 이하인 군이 23세 이상인 군보다 자살사고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가 대학 재학 이상인 군에 비해 우울 점수와 자살사고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종교는 가톨릭이 기타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복무형태 별로는 상근예비역들이 간부나 현역인 군에 비해 우울과 자살사고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복무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r=.76, p<.001$), 스트레스와 자살사고($r=.58, p<.001$), 우울과 자살사고($r=.58, p<.001$)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이나 단순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변수인 스트레스, 우울, 나이, 교육정도, 복무형태 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정규분포, 등분산성, 다중 공선성의 가정이 모두 만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다중 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40~0.99로 .3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0~2.50으로 기준치인 3을 넘지 않았으며, 상태지수(CI)는 2.81~19.31로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분석

Table 3.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 21 ^a	15.71±24.35	0.24 (.789)	31.84±10.86	0.11 (.897)	2.04±3.96	3.93 (.021) a>c
	22 ^b	16.46±18.49		32.31±9.44		1.16±2.10	
	≥ 23 ^c	14.53±16.75		31.73±8.89		0.92±1.99	
Education	High school	18.90±17.12	1.39 (.166)	35.89±10.29	3.54 ($< .001$)	2.46±3.41	3.63 ($< .001$)
	University	14.96±20.41		31.07±9.28		1.06±2.48	
Religion	Buddhism ^a	16.33±19.93	3.16 (.025) c>d	31.75±10.09	2.21 (.087)	1.41±2.56	1.07 (.361)
	Protestant ^b	15.90±19.21		32.85±9.42		1.16±2.10	
	Catholic ^c	25.52±24.78		35.97±9.80		2.16±2.98	
	Others (None) ^d	13.45±18.42		31.20±9.40		1.23±3.06	
Form of military service	Officers on active service ^a	10.82±11.13	1.50 (.224)	29.14±7.06	9.12 ($< .001$) c>a, b	0.54±1.10	9.78 ($< .001$) c>a, b
	Soldiers on service ^b	15.50±21.98		31.05±9.83		1.05±2.54	
	Reservists on full-time duty ^c	18.45±14.43		36.27±8.93		2.59±3.42	
Duration of military service (month)	≤ 6	12.63±12.40	1.39 (.237)	31.14±9.24	1.51 (.200)	2.13±3.22	2.09 (.082)
	> 6~≤ 12	14.87±21.44		31.29±10.53		1.06±2.72	
	> 12~≤ 18	18.07±21.90		32.68±9.77		1.53±2.75	
	> 18~≤ 24	18.29±22.49		33.58±9.77		1.20±2.72	
	> 24	10.82±11.13		29.14±7.06		0.54±1.10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N=302)

Variable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r (p)	r (p)
Stress	.76 ($< .001$)	.58 ($< .001$)
Depression		.58 ($< .001$)

을 한 결과, Durbin Watson test 결과는 1.534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은 스트레스($\beta=.36$, $t=5.18$, $p<.001$), 우울($\beta=.28$, $t=3.91$, $p<.001$), 나이($\beta=-.14$, $t=-3.13$, $p=.002$), 교육정도($\beta=-.12$, $t=-2.60$, $p=.010$)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자살사고에 대해 40.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변인 중 스트레스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Table 5).

논 의

최근 군 내부에서의 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군 장병들의 심리적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군복무 병사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후방 지역에 위치한 영호남의 6개 부대를 대상으로 군인들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첫째, 대상자의 정신건강 특성을 보면 스트레스의 평균은 15.71점(정상범위 97%), 우울의 평균은 32.02점(정상범위 78.8%), 자살사고의 평균은 1.34점(정상범위 96.4%)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90% 이상이 정상적인 범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후방부대의 병장을 대상으로 한 Kim (2008)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정상범위인 대상이 30%인 것과 비교했을 때, 후방 지역의 복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Sohn (2007)은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90.1%가 정상적인 범위에 속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살사고가 더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반면, 우울은 약 79%가 정상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Kim (2008)과 Hyun 등(2009)의 연구에서의 77% 보다도 약간 높았다. 위의 두 연구에서는 일반 병사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N=302)

Variables	β	SE	t	p	VIF	CI	Tolerance
Stress	.36	.01	5.18	<.001	2.42	2.81	.41
Depression	.28	.02	3.91	<.001	2.50	6.82	.40
Age	-.14	.17	-3.13	.002	1.00	9.69	.99
Education	-.12	.31	-2.60	.010	1.06	19.31	.95
Adj. R^2 = .406; F=52.03; p < .001.							

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비교적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간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후방 지역 병사들의 우울정도가 전방 지역의 병사들에 비해 더 낮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므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방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방에 비해 전투준비라는 긴장상태가 덜하기 때문에(Ryu, 2004)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후방 지역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근예비역이 많고, 군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역사회에 단순노무에 동원되고 있어 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은 저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조롭고 통제된 군 생활은 전방 지역 병사보다도 정신적 에너지의 내면화 기회가 더 많아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볼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후방 지역 병사의 우울의 원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어,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의 차이를 보면, 스트레스는 종교가 가톨릭인 군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가 없거나 기타인 경우보다도 가톨릭 신자인 군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Joe (2003)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적대감도 적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군 생활 적응에 있어서는 종교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우울은 연령, 종교, 복무기간과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과 복무형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고, 간부나 현역보다도 상근예비역이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살사고는 종교와 복무기간과는 차이가 없었고,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복무형태가 상근예비역일 경우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나

이가 어릴수록 성공적인 역할 수행 정도가 낮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 군 적응도 어렵다고 한 Kim (2007) 및 Lee와 Chung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나이 어린 병사들이 갑작스러운 통제 상황과 부자유스러운 집단생활의 해소책으로 자살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Seo (200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기도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한 Hyun 등(2009)의 연구에서는 군 적응이 연령과는 차이가 없고 복무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복무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긴장상태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후방 지역 병사들의 군 적응을 위한 임무 수행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등과 관련하여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Smith 등 (2007)은 학력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과 자살점수가 낮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Joe (2003)는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와 군 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군 내에서의 건강증진행위 수행능력이 높고, 군 생활 적응도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Hyun 등(2009)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졸업 대상자가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대상자보다 군 적응을 더 잘한다고 하였고, 또한 Kim (2008)의 연구에서는 학력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복무형태에서는 상근예비역이 자살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상근예비역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군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에는 가정환경을 비판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 허약한 체질 비판, 여자관계, 염세적인 비판 등이 이유(Seo, 2007)인 것으로 볼 때, 현역보다는 상근예비역이 자살의 개인적인 원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군에서의 고참의 가혹행위 외에도 자존감 결

여, 부모간의 불화, 집안의 경제적 악화,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등도 중요한 자살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Lee & Chung, 2001). 상근예비역의 표현에 의하면 “실제 현역들은 예비군 조교 보직과 행정병을 맡지만, 상근예비역은 부대 경계와 입대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잡무로 제대 후 군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위축된다.” (Kim, 2010)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상근예비역의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군인으로서의 경험은 우울이나 자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군 상담과 심리적인 관심은 현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를 통해 상근예비역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현역 못지않게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과 스트레스($r=.763$), 스트레스와 자살사고($r=.583$), 우울과 자살사고($r=.575$)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Kim과 Lim (200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Kim (2008)과 Sohn (2007)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자살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자살은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울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Park & Shin, 2007).

넷째,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beta=.36$), 우울($\beta=.28$), 나이($\beta=-.14$), 교육정도($\beta=-.20$)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자살사고에 대해 40.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살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군 스트레스이었다. 이는 Ryu (2004)의 연구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자살과 관련이 있다고 나온 결과와,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자살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이 있다는 Park과 Koo (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Hyun 등(2009)의 연구에서도 군 스트레스가 군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났다. 군문화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심리적인 불안정, 개인적 특성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우울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적응도 어렵게 된다(Hyun et al., 2009). 그 다음으로는 나이와 학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역할, 직무, 대인관계, 외부 스트레스가 심하고, 군부대 적응이 어렵다는 Lee와 Chung (2001), Kim (2007), Jang (2008) 등의 연구결과와 학력이 높아질수록

군 적응도 역시 증가한다는 Smith 등(2007)의 연구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군생활에서의 불안 역시 증가한다는 Kim (200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군복무병사들의 군생활 스트레스가 군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군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완시킬 수 있도록 병영 스트레스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과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시행하여 귀중한 인명 손실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후방 지역의 군인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 및 일반적인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 우울, 자살은 정상적인 범위에 속했지만, 우울점수가 비교적 전방부대에 비해서 높았다. 후방 지역 군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변수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와 상근예비역인 경우에 우울과 자살점수가 높았다. 후방부대의 자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우울, 연령, 그리고 학력 등의 변수들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후방 지역과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군병사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에 대해서 비교 연구할 수 있었고, 특히 후방 지역에 근무하는 현역과 상근예비역의 차이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방부대 군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취약한 위험군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후방 지역 상근예비역의 갈등과 정신건강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e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Choi, J. G. (2005). *A study the administration practises for the prevention of the suicide in arm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Hyun, M. S., Cho, H. I., & Kang, H. S. (2009). Influencing factors on military adaptation among Korean soldi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305-312.
- Jang, K. S. (2008). *The influencing factors of adjusting to military life for new generation soldiers based on self esteem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Joe, S. Y. (2003). Relation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mental health, and military life adjustments of soldi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164-171.
-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Soldiers on service & Reservists on full-time duty*, <http://www.mma.go.kr>
- Kim, E. Y. (2008). *A study on new-generation soldiers' adaptation to their military life and practice of the military social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im, J. C. (2004). *Study about suicidal impulse of soldi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Yongin.
- Kim, J. H. (2010). *Reservists on full-time duty to word*. Retired January 7, 2010 from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
- Kim, J. S., & Lim, Y. M. (2002).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tress, coping behaviors, and dep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 19-32.
- Kim, Y. G. (2007). *Effect of soldier's physical activity on the mental stress during military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Koh, K. B., Park, J. K., & Kim, C. H. (2000). Development of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 707-719.
- Koo, S. S. (2004). *A study on adjustment in military life of the new generation soldi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H., & Chung, Y. C. (2001). The clinical features and adaptability of suicide attempted soldiers after rejoining the army unit.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10(2), 132-139.
- Park, D. K., & Shin, S. W. (2007). The case study of depression and modeled suicide in Korea and it's social counter-measures.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6(3), 91-124.
- Park, H. S., & Koo, H. Y. (2009). The buffer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or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87-94.
- Park, K. B., & Shin, M. S. (1991). Perceiv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298-314.
- Republic of Korea Army (2004). *Accident analysis in army*. Seoul: Author.
- Republic of Korea Army (2007). *Accident analysis in army*. Seoul: Author.
- Ryu, T. H. (2004). *A study on the effects between military stress and military crimin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Defence University, Seoul.
- Seo, H. S., & Lee, D. S. (2008). The influence of new generation soldier's career development on their adjustment in military, laying stress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1), 33-49.
- Seo, K. W. (2007). *A study on suicide incidents of the new generation enlisted soldiers in the military and preventive meas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Seoul.
- Sohn, J. N. (2007). Discriminating power of suicidal ideation by life stress,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267-275.
- Smith, T. C., Zamorski, M., Smith, B., Riddle, J. R., LeardMann, C. A., Wells, T. S., et al. (2007).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 large military cohort: Baseline functional health status of the millennium cohort. *BMC Public Health*, 340(7), 1-13.
- Yang, J. K. (1982). The self-rating depression scale on psychiatric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1, 217-227.
- Youn, J. S. (2008). *A study on the attitudes of the military officials on military social wor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3, 505-515.